

林業協同組合 誕生의 意味

최 민 휴 / 임업연구원 산림경영부장

오랜 所望이던 林業協同組合法이 制定됨에 따라, 우리 林業界에도 協同組合時代의 開幕을 보게 되었다. 이번 林協法制定은 30여년전 山林法制定과 쌍벽을 이루는 이땅의 林政史的 事件이라 할만하다. 온 林業人들과 더불어 林協의 앞날에 幸運을 빌면서, 그 意味를 다음 네가지로 整理해 보고자 한다. 그 첫째는 民主林業時代의 開幕이요, 둘째는 經濟林業時代의 出發이며, 셋째는 環境林業時代의 到來이고, 넷째는 協同林業時代의 始作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첫째, 民主林業時代의 開幕이란 무엇인가.

이나라 林業活動의 主體가 누구냐고 물을 때, 건국 이래 半世紀동안 林業의 主體는 백성들이었다기 보다는 政府였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다시말하면 官主林業이었다. 그도 그럴것이 荒廢된 山野를 復舊하는데 필요한 힘의 源泉은 政府일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로서 우리나라가 人類 歷史上 最短期의 國土綠化 成功國의 記錄을 남기게 되었다. 이 半世紀에 걸친 國土綠化의 長征을 통하여, 全國 山林契員들은 綠化의 主役을 맡아왔고, 그것은 드디어 有終의 美를 거두게 되었다.

이제 90年代의 狀況은 綠化時代의 그것

이 아니다. 더욱이 文民政府의 出帆과 더불어 더이상 政府가 林業活動의 主體가 될 수 없다. 山가진 農民들, 나무를 가꾸는 200萬 백성들이, 이 나라 林業의 主人이요 擔當者들이 될 수 밖에 없다. 비록 零細하고 힘이 미약할지라도 이번에 마련한 그들의 自助組織은, 憲法의 定한 바에 따라 나라의 保護를 받으면서, 스스로의 갈길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 새 林業協同組合法의 발효에 즈음하여 民官을 떠나서 이 나라 林業界 모두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 林政史的 意味를 되새겨 봄직하다. 官主林業의 헌옷을 벗고 民主林業의 새옷으로 갈아입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經濟林業時代의 出發이란 무엇인가.

과거 綠化林政의 1次目的은 山林의 公益性 회복이었고, 經濟性은 그다음이었다. 荒廢된 山地에는 먼저 地表와 植生을 固定하고 地力을 회복함이 없이 經濟樹種을 심는다는 것은 物理적으로 不可能한 일이다. 이點 弘報不足으로 綠化는 됐으나 經濟林이 없으니 林政의 矢敗인양 一部 國民들이 비판을 일게 하는 原因이 되어 왔으나, 其實 綠化政策에 있어서 우리 林業人들은 技術定石을 선택하는데 소홀함이 없었다고 믿

어진다. 그것은 바로 經濟林業은 綠化成功以後 제 2 段階 綠化運動으로 推進할 예정이었으며, 이러한 당초 시나리오에 따라 지금이 바로 經濟樹種으로 經濟林業을 推進할 때가 된것이다. 그런데 技術的 興件과는 아랑곳 없이 社會經濟的 여건이 당초 시나리오의 進行을 가로막아 왔다고 할 수 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林業經營構造 問題이므로 零細山主들의 林業協同組合 組織이 構造問題를 뛰어넘어 經濟林業을 推進하는데 걸림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80년대 후반 東西冷戰이 끝나고 모든 나라 모든 產業이 經濟戰爭時代에 접어들고 있는 요즘, 林業分野에 있어서도 國際競爭力을 確保하지 않으면 地球上에 生存할 수 없게 될것임은 불을 보듯 흰한 일이다. 山林의 公益性만 외칠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經濟林業의 旗幟를 내걸고 이 나라 民營林業을 꽃피게 하는 일, 이 일을 시작해야할 때가 바로 林業協同組合의 새 간판을 달려고 하는 지금이라고 믿는다.

셋째로는 環境林業時代의 到來란 무엇이나.

自然을 대상으로 하는 林業은 本是 環境創造産業이다. 다만 그 環境材가 『市場』을 못 가졌다는 한가지 죄때문에, 商品生産을 특징으로 하는 資本主義經濟 體制下에서 빛을 못 보았을 뿐이며, 그로인해 오늘날 우리人類는 地球終末의 문턱에 다달아 있는 狀況이 되었다. 그 결과가 1972년 스톡홀름 環境會議요, 1992년 리우環境開發會議(地球頂上會議)였다. 그동안 머리좋은 경제석학들은, 다투어 어떻게 하면 市場原理의 틀 안에서 市場없는 환경재의 需給을 調節하느냐 하는데 몰두해 왔다.

그 경론이 리우會議의 環境문건에 반영되었고 山林原則의 여러 조문에 明文化되기에 이르렀다. 즉 山林환경재는 국제간이나 국내에 있어서나 無賃乘車(free riding)을 최대한 줄이고 그 受惠者들로 하여금 環境의 代價를 환경재생산자들에게 還元토록 하는, 이른바 内部化政策(Internalization policy)을 實現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具體化 하는데는 山林환경재 生産자 조직을 구성치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統制不可能한(uncontrollable)한 환경재에 대하여 分散된 小規模 山主들이 그 權利를 개별적으로 主張하기도 어렵고, 受惠者를 찾아내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환언하면 여러가지 山林환경재에 대하여 受惠者들에게 權利를 主張하는데는 集團化가 필요하다. 예컨대, 水源地域에 대한 水源稅, 아카시아 集團造林地에서의 蜜源稅, 수렵지역의 入場稅, 公園地域의 入場稅 등 수많은 山林환경재의 價値를, 그 生産者 集團인 林業協同組合이 主軸이 되어, 實現함으로써, 그 零細하고 취약한 善意의 生産者들에게 所得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市場없는 山林환경재도 社會的所要가 林協을 통하여 生産者에게 연계되고 그 需給均衡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하게되며 地域이나 國家 나아가 地球次元에서도 環境林業의 새 章을 여는 계기가 될것이 틀림없다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林協은 人類의 快適한 環境을 만들어가는 主役인 셈이다.

넷째로는 協同林業時代의 始作이란 무엇인가.

經濟的 弱者들의 集合體인 協同組合은 組合員의 상부상조를 통하여 밖으로는 獨占資本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고 안으로는 소

규모의 비능률을 극복함으로써 組合員들 스스로의 生存과 協同社會의 복리증진을 지향한다.

특히 우리의 民營林業은 自然的·社會經濟의 重荷를 한 몸에 짊어진채 스스로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林協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10여년에 걸쳐 이른바 『協業經營』 經驗을 거쳤으므로 協同組合經營으로 移行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믿는다.

獨逸이나 日本 등 先進國의 林協이 他山之石이 될수는 있겠으나, 우리 스스로의 발자취는 아니므로 많은 經驗을 要할 것이다. 그러나 分명한것은 우리 林業現實에 비추어 林協이 萬能일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林協없이 民營林業의 暢達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林協이 할일이 여러가지 있겠으나 最優先으로 해야할 本然의 任務는 各組合員들이 가지고 있는 山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 곧 育林業이며, 林業을 經營하는 일이다.

中央, 地方을 막론하고 林業協同組合 組織의 總力量은 여기에 集結되어야 한다. 이 本業에 충실해야 하며 副業은 부차적인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協同林業을 組織하는데 郡單位가 적합치 않다면, 적절한 地域單位를 정하여 그 下部組織을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 部分이 協同林業의 死活이 걸린 事業이므로 思慮깊은 검토 끝에 具體化해야 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새 林協에 간곡히 부탁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民營林業의 모든 問題는 林協으로 통한 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民有林에 관한 많은 行政業務도 대폭 林協에 委託하게 될 것이고, 갖가지 支援事業과 技術情報도 林協을 통하여 一元化하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부디 林協을 위한 林協이 되지 말고 山主組合員을 위한 林協이 되어야 한다. 各級 任職員을 위한 林協이 되지 말고 林協을 위해 奉仕하는 任職員이 되어야 한다. 中央會를 위한 林協이 되지 말고 林協을 위하여 奉仕하는 中央會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民主 林協의 참다운 모습이다.

그 건물, 그 사람에 간판만 바꿔 달았다 하여 무엇이 달라지랴 생각해선 안된다. 山林組合과 林業協同組合은 本質적으로 다른 林業團體이다. 모든 組合, 모든 林協任職員은 물론 모든 政府機關 要員들의 林協에 대한 認識과 意識이 革命的으로 轉換하는 일이 林協運動의 成功的 出發에 무엇보다도 緊要하다고 믿는다. 앞으로 國際協同組合聯盟(ICA)에 加入하는 일도 있고, 制度面에서 補完해야 할 일도 있겠으나, 이는 시간과 더불어 經驗을 쌓아가며 進行시킬 일이다.

다시한번 林業協同組合의 誕生을 祝賀하면서 그 앞날에 幸運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祈願한다.

